

## COMMUNITY PROJECTS BY ARTISTS

편집

인천 배다리·우각로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마석 이야기

리포트

**동두천 프로젝트**

▶ 기획자 인터뷰



### 김희진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

인사미술공간의 큐레이터

김희진은 동두천을 두고

'썸' 지역이라고 말한다. <동두천 프로젝트>에 난관이 많았음을 그는 그렇게 한 마디로 표현했다. 무겁게 침묵하던 동두천의 '입'을 어떤 방식으로 열었는지 김희진에게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 “어설픈 교화는 주제넘은 짓, 오직 현실을 바라보게 할 뿐”

## 지역공동체를 위한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호기심과 열정이 많은 작가나 기획자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의 일상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지역’과 ‘공동체’에 특화된 예술을 기획한다고 생각 해본 적이 없다. 미술이라는 준거의 틀 내에서 구조화시킨 관념적인 ‘현실’과 추상적인 ‘공공’을 논하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뿐이다. 이런 작업은 궁극적으로 내가 얼마나 솔직하고 열려 있는 사람인가 바라보게 해준다. 현장에서는 미술이라는 ‘아우라’나 ‘제스처’가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알고 이해하는 태도와 지각, 인식, 애정의 정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매 순간 나의 시각을 확장하는 ‘나’를 알기 위해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나러 나가는 것이다.

## 공공예술, 지역예술이라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예술활동들을 지칭하는 말로는 적당치 않아 보인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 바라는가?

특별히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지역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지역예술이라 할 필요가 없다. 땅따먹기 하듯이 영토적 개념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고, 중앙을 준거로 한 설정인 듯한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지역성’의 핵심은 역사적 맥락과 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정신적 영역이다. 그 정신적 동질성으로 연대한 사람들을 ‘공동체’라 부르는데, 사실 무슨 종교 공동체를 떠올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한다. 이 커뮤니티는 지리적 지역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커뮤니티 일원들은 계속 이동 중이고 그 성향도



계속 변해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리적인 지역 환경도 급속히 변해가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된 맥락이라는 것을 설정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동시대의 일상을 살아가는 역사 현장 속의 공공이기 때문이다.

### 제도권 안의 예술과 어떤 점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가?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우, 그 지역의 지형적,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 인구학적 통계 같은 계량적 지표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치, 사회,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연구하고 지금 이 시점의 공적, 사적 일상사도 추적해야 한다. 학제 간 협업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간에 걸친 높은 학문적 열의와 신축적인 수행성이 따라줘야 한다. 일상에 전문성이 녹아 있어야 하는 매우 도전적 작업이다. 기획자나 작가는 조사, 연구, 작업과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한 팀이 되어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복합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상은 절대 나이브한 도피처가 아니다.

### 〈동두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06년 가을 미국 뉴욕에 있는 뉴뮤지엄(New Museum)에서 인사미술공간으로 초대장을 보내왔다. 2007년 12월 새 건물을 지으며 재개관한 뉴뮤지엄이 해외 미술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만든 〈뮤지엄 애즈 허브 Museum as HUB〉(접점으로서의 미술관)라는 프로그램에 인사미술공간을 초대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초대된 미술기관들이 뉴뮤지엄을 ‘접점’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기획 때 단계에서 협의를 거쳐 전체 구조를 짠 후,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획의 효율성을 위해 파트너 기관들이 공동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대한 개념적 통일을 갖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각 프로젝트별로 적절한 형식의 발표 기회를 갖는다. 뉴뮤지엄은 허브 프로그램을 위해 신축건물 5층에 ‘허브 스페이스’(Hub Space)를 따로 마련하여 기관별 프로젝트 발표를 지원하고 각종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홈페이지 안에 독립 페이지(<http://www.museumashub.org>)를 만들었다.

### 뉴뮤지엄에서 기관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주제는 어떠한 것이었나?

허브 프로그램 첫 파트너십에는 멕시코시티의 ‘뮤세오 따마요’(Museo Tamayo), 아인트호벤의 ‘반아베 미술관’(Van Abbemuseum), 서울의 ‘인사미술공간, 카이로의 ‘타운하우스 갤러리’(Townhouse Gallery of Contemporary Art)가 초대되었다. 선별 기준은, 대륙별 안배면서 동시에 지역성과 작가 중심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온 진보적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



었다.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여름까지 주제와 발표 형식을 협의하는 두 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이웃’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2007년 12월 뉴뮤지엄의 개관에 맞춰 허브 파트너 기관이 모두 소개되는 단체 개막전을 갖고 이어 각 기관별로 2개월씩 본 전시를 갖는다는 구조를 세웠다. 기관별로 ‘이웃’이라는 개념을 해석하고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소통과 교류의 지점을 찾아본다는 목표이다. ‘이웃’은 문자 그대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네일 수도 있고 기관이 위치한 지역적 맥락을 대변하는 다른 커뮤니티일 수도 있다. 이에 인사미술공간은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적인 모순과 복잡성을 드러내는 지역으로 동두천을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각 파트너 기관들은 허브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에 자체 예산을 기본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때 뉴뮤지엄이 기획 회의와 신작 제작, 각종 동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했다. 또한 자금을 조성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했다.

### 뉴뮤지엄의 이런 프로젝트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뉴뮤지엄은 60년대 카운터컬처 혁명 이후 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까지 뉴욕 다운타운의 급진적 지성인들의 문화적 자존심이었다. 이 프로젝트 뒤에는 뉴뮤지엄이 21세기형 미술관으로서 유럽에 대항하는 새로운 문화적 패권을 준비하려는 야심이 깔려 있는 것이다. 공간과 홈페이지, 일정한 예산 투자로 2년마다 세계 각지의 네트워크와 프로젝트들을 확보한다는 미국식 경영 마인드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간섭이 심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불평등한 협업이나 외교 친선 차원에서 형식만 갖춘 많은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비교해보면, 이 프로그램은 비교적 협업과 교류의 구조와 장만 제공하는 신축적이고 개방적인 이니셔티브이다. 이런 기회를 문화적 사대주의 운운하면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기획자의 방임이라고 생각한다. 주체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메인 컨셉을 어떻게 설정하고 접근했는가?

프로젝트의 구조적 기본 컨셉은 허브 프로그램이 2년에 걸쳐 해외 미술기관들과의 지역 간 교류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프레임에서 출발했다. 이런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과정과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소통이다. 과정은 전체 허브 프로그램 차원의 진행 과정이면서 동시에 동두천 프로젝트 내의 진행 과정이라는 두 층위로 되어 있다. 허브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프로젝트 개념 소개전과 본 전시로 구분되어 있다. 프로젝트 개념 소개전에서는 기관이



해외 프로젝트 이해와 동두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맥락 소개가 목적이었다. 일단 기관의 성격과 미션, 정체성을 배경으로 기관과 프로젝트 개념에 일관성이 있음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이 단계까지는 기관과 초대작가들이 일종의 콜렉티브가 되어 동두천에 접근하는 방식과 키워드를 분배, 조율, 합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획자와 작가, 비평가, 디자이너, 지역 활동가들이 팀을 이루어 초기 단계부터 동두천을 같이 답사, 조사, 인터뷰하며 자료를 모으고 공유한 것이다.

동두천 프로젝트 내에서도 작가별로 전체 작업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서론과 본론 형태로 작업을 배분했다. 동두천을 접근하는 개별적 접근법과 키워드 맞보기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서론으로 깔아놓는 식이었는데, 예컨대 웹 퍼블리싱 작업을 최종 소개할 노재운의 경우는 개막전에서 그것의 트레일러 영상물을 제작했고, 고승욱은 퍼포먼스와 비디오를 제작할 상패동 공동묘지를 맥락화해놓기 위해 공동묘지 공원화 제안서를 작성했으며, 김상돈은 동두천 주민들과의 소통의 첫 단계로 퍼포먼스를 동반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동두천에서의 젠더와 소수자 문제를 다룰 비디오를 제작할 정은영은 개막전에서 사진 시리즈와 텍스트를 담아 제작한 포스터를 배포하였는데 이는 관객들이 이슈에 대한 개념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이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처음 동두천에 갔을 때 느낀 점은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폭력뿐 아니라 외부의 몰이해로 인해 온 도시가 총체적인 불신과 단절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중앙 미디어의 공식 사건, 사고 기록에만 의존해 담론을 먼저 세우고 이를 동두천에 적용, 투사시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고 피상적이며, 동두천을 또 하나의 ‘허구’로 재생산해내는 데 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잠재적인 문제의식은 팽배하나 발언과 소통 과정이 차단되어 자발적 외면과 침묵, 망각 상태에 빠져 있는 동두천에서 미술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시 미화 차원의 제스처는 말할 것도 없고, 어설픈 교화나 계몽적 접근은 통하지도 않으며, 오직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고 현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소통에의 의지를 촉발시키는 정도였고,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것이었다. 궁극적으로는 동두천의 과거와 현재를 같이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동두천의 주체를 질문해봄으로써 미래 동두천의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적 비판의식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싶었다.

###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는가?

두 가지 층위의 문제이다. 동두천이라는 지역의 난해함 자체와 이를 해외에 소개해야 한다는 지역성의 번역 문제였다.



인구 8만 8천의 동두천은 서울과 휴전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중소도시다.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도시 중앙에 하천이 흐르는 천혜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20세기 초반 일제 식민 시절부터 시작하여 미군정, 군부독재 시절에 이르는 한 세기 내내 한국에 주둔한 일본, 미국 군대의 주요 주둔지였다. 지금도 수도 서울에 있는 용산 미8군이 지휘본부와 사령부 위주라면, 북한에 대한 최전방인 경기도 북부 지역의 주둔지들(동두천, 의정부, 양주, 송추, 평택)에는 용산을 보급선으로 둔 전투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원주민들이 살던 한국의 평범한 지역들이 1960년대부터 도시 형성의 기본축이 주둔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민족적 모멸감을 상기시키는 뜨내기들의 도시로서 ‘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거주민들과의 협의나 동의 과정 없이 반 강제로 진행된 토지 몰수와 동두천의 42%를 차지하는 미군 공여지가 동두천의 토대를 이룬다면, 그 상부구조에는 ‘국가 안보’와 ‘대외적 외교 관계’를 기치로 정부가 작동시킨 군국주의, 민족주의적 집단 심리와 지역 호호들의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소수, 극빈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권력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가세되면서 동두천은 집단적 부정과 소외, 삭제, 예외, 망각과 비가시성의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지역 자체의 난해함에 더해 동두천에는 자체에서 축적된 일상의 자발적 기록과 역사가 워낙 희귀했다. 공식적 기록이나 외부에서 동두천을 보는 시각들은 많은 편이지만 그 시각과 이슈는 다양하지 못하고 온통 미군과 기지촌에 대한 것들 일색이다. 사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려 해도 동두천의 과거는 무거운 침묵이나 역사적 트라우마 속에서 생존을 위해 터득된 자체 검열과 픽션화된 기억 뒤에 숨어서 종잡을 수가 없었다. 동두천의 현재는 너무나 뜨거운 이슈들—미군 재배치, 미군 범죄, 무차별적 개발계획, 반환기지 환경보상 문제,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족—로 예민해서 이슈 간의 경중이나 전후를 가릴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주민들의 혼성, 다면성, 다층성을 매핑(mapping)하기도 어려웠다. 수십 차례의 현장 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관련 자료(구술사, 논문, 서적, 필름, 다큐멘터리, 활동가 팸플릿, 온라인 정보, 스크랩)를 구축했지만 우리가 동두천의 굳은 침묵 끝에서 봉착한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와 의지의 문제였다.

일상의 기록 편린이라도 있어야 동두천을 ‘말’하는 다양한 언어를 세울 수 있는데, 말은 많지만 모두 제도권에서 구조화한 말들이라 일상을 살아갔던 동두천 주민들의 기억과 내러티브를 기술, 기록할 언어 자체가 없었다. 동두천에서는 결국 언어라는 개념 자체가 확장되어야 했다. 주민들이 뱉어내는 일체의 비주얼, 버벌(혹은 언버벌) 언어를 모두 기록해서 소통의 거리를 비축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단히 새로운 소통과 표현 방식을 시도해 주민들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그동안 침묵해온 다양한 층위의 내러티브와 현안들을 발언,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면접촉을 통해 상호 신



뢰와 감정이입이 되어야만 했고, 동두천을 외면, 오해해온 우리의 시각과 해석의 문제점도 비판적으로 재인식해야 하는 각자의 발견도 필요했다.

###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동두천이 워낙 ‘썸’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지역을 알아갈수록 애초에 계획했던 소통방식과 작업들이 계속 진화, 개발되어야 했다. 가령 기초 연구조사가 한계를 보일 때 즈음 더이상 주민들이 입을 열지도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왔다. 적극적인 개입이나 액션이 동반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우리가 작성한 또다른 픽션으로 그칠 것 같았다. 이때 작가 김상돈은 우선 주민들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활동적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퍼포먼스를 동반한 워크숍 프로그램 <디스코플랜>을 진행했다. 캠프 님블의 경우, 이미 미군으로부터 반환되었지만 심각한 토질 오염 때문에 아무 용도로도 사용되지 못한 채 아직도 출입 통제 철책이 쳐져 있다. 반환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고, 따라서 환경보상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작가는 이어 반환될 캠프 모빌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주민들이 반환 현황에 대해 알고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했다. 도시 곳곳을 점유한 미군부대 담장과 물탱크를 그냥 보는 차원에서 나아가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려면 담장과 물탱크 앞에서 그 높이와 견고함을 직접 경험하게 해봐야 했다. 그는 캠프 모빌이 헬리콥터 기착륙지였던 점에 착안하여 치유와 재생 식물의 씨앗을 ‘장착’한 물로켓, 헬리콥터 등을 주민들과 함께 제작하여 철책 너머로 날림으로써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토양을 재생하는 퍼포먼스를 고안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실제 비행체가 담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장애물의 존재감을 체험하며 자발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과 대화이다. 퍼포먼스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나도 개인의 힘으로 부닥치기에 너무나 높고 견고했던 담장을 보면서 그 어떤 어려운 담론으로도 풀지 못할 현실의 완고함을 경험했다. 한미 관계라는 거대 구조가 온 몸으로 느껴졌다.

이런 개입이나 액션도 동두천 주민들의 현안과 습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동두천 주민들은 무관심 정도가 아닌 극심한 반감을 나타냈다. 우리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으로 친해진 동두천 시민연대 회원들 쪽에서 주민들이 액션을 원하는 시기와 방식을 알려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올해 1월 국방부가 캠프 님블을 개방해 환경평가착수보고회를 가진 이후 향후 평가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보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캠프 님블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시민연대가 국방부의 협조를 구해 4월 캠프 님블 안에서 동두천 프로젝트 작가들과 연합해 즉



구대회를 열자는 제안을 해왔다.

동두천 프로젝트의 해외 소개 역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과정을 다면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었다. 어느 날 덩그러니 미국에서 동두천 얘기를 한다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으며, 이해한다 해도 어느 일면에 대한 이해로 그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5월 토크 프로그램 이전에 프리토크(Pre-talk) 프로그램이라 하여 동두천에서의 수차례 일상의 현장 인터뷰를 담아 편집, 자막 처리한 영상물을 제작해 본 전시 아카이브 섹션에서 상영하기로 했다. 위에 언급한 4월 족구대회도 프리토크 세션에 들어간다. 본 전시 토크 프로그램도 뉴욕과 서울 두 군데에서 열리는데, 뉴욕에서는 두 차례의 강연과 작가와의 대화, 두 차례의 공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강연과 프로젝트 관련자들(기획자, 작가, 토론자, 필진, 지역주민, 디자이너)이 한 자리에 모여 대토론회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 〈동두천 프로젝트〉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지역 간 교류 측면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와 침묵, 오해 속에 가려져 있던 동두천이 언젠가 다른 ‘이웃’ 지역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언어와 구조 속에 처음 소개, 자리매김하는 긴 과정의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크다. 해외 유사 지역들과 동두천 간에 문제의식의 공감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좀더 폭넓고 다양해진 시각으로 동두천을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 ■